양산 상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본격 착공

차진형기자 | 승인 2026.11.12 17:57 | 10면

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착공

▲ 상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조감도.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양산시 상북면의 새로운 문화·복지 거점이 될 '상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지난 9월 22일 세대공감센터 착공설명회를 열고, 인근 상북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0일부터 실착공에 들어갔다.

'상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양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에 위탁해 추진하는 핵심 지역개발사업이다. 특히 이번 세대공감센터는 지난 약 3년간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지으며 실착공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농촌

활력 증진과 인구 유입·유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향후 세대공감센터가 완공되면 중장년층과 청소년층을 아우르는 복지·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마련되며, 그 서비스 혜택은 인근 배후마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열린 착공설명회에서는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안전관리 방안과 주민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측은 "인근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직원 전용 주차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정기 추진위원회 운영과 상시 소통창구 개설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된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기쁘다"며 "세대공감센터가 상북면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바란다"고 전했다.

손홍모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은 "세대공감센터는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공사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완공 후에도 지속사능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